

주간기도정보

2025. 4. 22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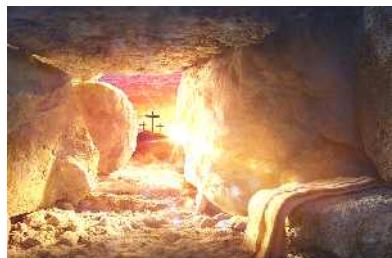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신지라”

“십자가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한국교회도 그 길 따라”

연합기관 및 단체들, 2025년 부활절 메시지



한국교회 연합기관 및 단체들이 2025년 부활절을 맞아 일제히 메시지를 내고 주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에 대해 전했다. 이들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절망도 이기는 능력이라며 한국교회가 이 부활의 소망을 널리 전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졌을 때, 제자들은 흩어졌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가르치셨으며, 성령을 부어주셨다”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그 어떤 위협이나 고난이, 심지어는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들의 삶을 막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마 16:24)을 말씀하신다.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 앞에서 주저하거나, 포기하며, 떠날 수도 있다”며 “부활이 없다면, 죽음 앞에 그 어떤 힘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으며, 십자가 앞에서 잠든 우리를 깨우신다”고 했다.

이어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르쳐주신 삶은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이다. 사랑과 섬김은 나를 비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나의 것을 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길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한다”며 “하나님은 죄에 노예 되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다. 하나님은 14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가슴에 부활 신앙을 심어주었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은 “부활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운동력’이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아 움직이게 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하늘의 생명력”이라며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결코 홀로 있지 않으며, 우리 삶의 끝이 어둠이 아님을 증언한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했다.

이어 “올해 부활절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미움 대신 사랑이, 절망 대신 희망이, 무너짐 대신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주님의 부활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며, 영원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믿음 속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디모데후서 1:10)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로마서 6:4)

하나님, 두렵고도 무서운 죄와 죽음의 절망과 끝에서 부활하사 복음으로써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주와 함께 장사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연합되어 새 생명을 주신 믿음의 터를 주의 몸 된 교회에게 더욱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일깨우사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며 영원한 산 소망과 믿음으로 예수 생명이 충만케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삶에 사랑과 진리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절망과 불신, 무너짐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뤄지게 하여 주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북 ‘표준약국’,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

매달 정해진 목표 판매금액을 달성해야 하지만 약은 충분치 않아…



북한 전역에 설치된 ‘표준약국’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개인 약 장사꾼들의 약을 넘겨받아 판매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표준약국’은 김정은 총비서가 2022년 5월 모든 약국의 표준화를 강조한 이후, 같은 해 평양 모란봉구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도 건설이 진행 중이다.

명목상으로는 국가가 운영하는 믿을 수 있는 약국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약품 공급 부족과 판매 목표 달성을 이유로 개인 약 장사꾼과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전국의 모든 시, 군에 새로 생긴 ‘표준약국’이 개인 약 장사꾼들의 돈벌이 창구로 전락 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어제 오후 약을 사러 ‘표준약국’에 갔다가 약국 판매원과 개인 장사꾼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며 “무슨 약이 거의 떨어져 가니 가져다 달라”, ‘받는 약 가격이 높아져 이전에 주던 가격으로 못 준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약국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하나는 2010년대부터 생긴 약국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표준약국’이다.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데 특히 ‘표준약국’은 지역 내 병원에 약품을 공급하는 국가기관인 의약품관리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사람들이 ‘표준약국’을 신뢰하는 건 국가가 공급하는 믿을 수 있는 정품 약을 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표준 약국’이 건물만 번듯할 뿐 속이 이렇게 썩었을 줄은 몰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소식통도 “지난 3월 초 아는 약 장사꾼을 통해 ‘표준약국’이 생긴 후 돈벌이가 더 잘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매일 장마당 약 매대를 돌며 무슨 약이 부족한지 알아보고 안전원과 노동자 규찰대를 피해 약을 몰래 넘겨주는 일을 하지 않아 너무 좋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준약국’을 의약품관리소가 직접 운영하지만 의약품관리소에 약이 충분하지 않다”며 “중앙에서 공급되는 약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국이 매달 정해진 목표 판매금액에 달성해야 한다”며 “그러니 잘 팔리는 해열진통제, 설사약, 항생제 등의 필수 약을 개인 장사꾼한테서 받아 팔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표준약국’에서 산 약도 말을 잘 안 듣는다(약효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며 개인 장사꾼을 통해 약 성분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가짜 약이 약국에 들어가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시책으로 포장된 ‘표준약국’이 본질에 있어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이사야 11:9)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언 29:2,18)

하나님, 열악한 의료환경에 많은 약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무능함과 이름뿐인 표준약국의 실상으로 여전히 황폐한 상황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궁휼히 여겨주십시오. 사회주의 시책을 말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방식이 공공연히 드러나고 이미 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어 백성들을 탄식하게 하는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소서. 주님,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한 공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희귀한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이상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청소년들 자살·자해 절박한 외침, 외면 말아야”…4가지 역할은
생명의전화, 청소년 살리는 걸음 ‘함께고워크’**



밤이 깊어 갈수록 청소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다. 생명의전화 전화상담과 청소년 상담 채널 ‘라임’(LIME)을 통해 접수되는 사연들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문턱 앞에서 건네는 구조 신호다. 그러나 이 외침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은 더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생의 의욕마저 꺼뜨리게 될 것이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대(10-19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7.9명으로, 2018년 4.7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질병관리청 ‘청소년 건강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를 37.3%, 우울감 경험율 26%, 자살 충동 경험율 13.5%, 자살 시도율 5.25%, 고립감 경험율이 18.1% 등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2명이 생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23년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10-20대 자해·자살 시도자 비율은 2013년 29.3%에서 2023년 43.8%로 14.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독 관련 손상 비율도 19.2%에서 33.5%로 상승, 청소년 정신건강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

청소년 자살·자해 문제는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와 절망, 외로움, 인정받지 못한 감정을 신체적 고통으로 전환해 표현하는 행위다. 상담 현장에서는 “자해를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이는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제공하지 못한 공감과 위로의 언어를, 자신의 상처를 통해 대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생명의전화가 제시한, 이런 현실 가운데 청소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네 가지.

첫째, 청소년의 마음을 먼저 들어야 한다. 어른의 시각으로 총고하거나 판단하기보다, 경청과 공감으로 다가서는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는 감정과 마음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정서교육과 생명존중 교육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진정한 감정 공유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셋째,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 개입 체계를 촘촘히 구성해야 한다. 넷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손잡아야 한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매년 5월 청소년을 살리는 걸음, 자살예방 캠페인 ‘함께고워크’는 함께 걸으며 청소년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힘은 전문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아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이사야 66:13-14)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브리서 3:1)

하나님, 깊은 절망 속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이 답답한 마음으로 생의 의욕마저 상실한 다음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와 기성세대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사 청소년들의 상한 마음을 돌아보며 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 영혼의 위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저들이 참된 위로를 얻게 하소서. 다음세대를 자해와 자살 충동으로 몰아가는 악한 사탄을 대적하며 기도하오니, 이 땅의 청소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임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므로 저들의 삶이 기쁨의 승리로 넘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